

소비자 입맛 사로잡은 '장성군 로컬푸드' 매출 '쑥쑥'

코로나 여파 소비심리 위축 불구
1일 평균 방문객 1000여명 달해
작년 매출 44억 전년비 68% 증가
진열대 확장 저장고·작업장 신축



유두석 장성군수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진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장성군이 운영을 지원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1일 평균 1000 명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 같은 방문객 수는 판매 실적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매출이 68%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 남면농협이 운영하는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전용 직거래 매장이자,

2017년 8월 개장 첫해에 매출 10억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35억원, 지난해 44억원을 기록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지역 소비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7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매출 성장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일취월성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장성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올해 확보한 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 증·개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농산물 진열 면적을 60% 이상 확대하고, 인접한 유희 부지에 저장고와 작업장을 신축해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농가를 위한 레스토랑도 신축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로컬푸드의 인기는 군과 지역농협이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협업해온 '장성 푸드플랜'의 결과물"이라며 "지역농협은 물론 상무대와 교육청, 민간기업, 지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푸드플랜 중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 입점 강진 버섯·작두콩 글로벌 판매



강진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버섯과 작두콩이 이달부터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해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진군은 미국 아마존 벤더 업체 크리에이티브(Kreassive 대표 셴창)와 현지 시장 맞춤형 상품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마존에 입점할 특산물로 버섯스낵과 작두콩차를 선정해 전남도 아마존 브랜드관에 런칭했다.

아마존은 180개국 3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유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강진군 특산물을 아마존에 선보이게 돼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아마존 입점을 발판으로 온라인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강진 농수특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호우 피해 이재민에 보일러 놓아준 '공기업의 상생'

한전KPS, 나주 다시면 경로당에 설치
체육관 바닥서 주무신 어르신 위해
주택·가재도구 정리 '구슬땀'도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이 최근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 죽지마을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집을 잃은 어르신들이 체육관 마룻바닥이 차가워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마을 경로당에 보일러 하나씩 놔드리겠습니다."

40여년 만에 집이 잠기는 물난리를 겪은 나주시 다시면 일대 마을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친 공기업이 마을 경로당에 보일러를 설치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전KPS'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김법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은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다시면 죽산리 죽지마을을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을 정비하고 가재도구 정리, 농경지 부유물 제거 등을 하며 구슬땀을 쏟았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는 임시 이재민 시설로 사용 중인 학교 체육관의 열악한 환경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집이 침수돼 학교 체육관에서 생활 중이던 어르신들은 한여름이지만 새벽녘이면 선선한 기운이 퍼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마음도 몸도 힘겨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김 사장은 "침수된 마을 경로당을 우선 복구해야 어르신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죽지마을 경로당에 보일러 설치를 지시했다.

김 사장은 "물에 젖은 벽과 바닥을 빨리 건조시켜 도배·장판을 마무리하면 주택 복구 때까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죽지마을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마을 회관에도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죽지마을 경로당은 지난 24일 보일러가 설치됐다. 보일러 가동으로 축축하게 젖었던 경로당 내부가 빠르게 마르면서 나머지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전KPS는 올해 나주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을 통해 화훼농가를 돕고, 저소득 가정에는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1억원 상당의 태블릿 PC 등을 지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폐현수막 활용 모래주머니 튼튼하고 안전해요

장흥군, 태풍 대비 상습 침수지역·저지대 비치

장흥군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태풍 대비용 모래주머니를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동면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은 최근 폐현수막을 활용해 재난대비를 위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었다.

이들은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습 침수지역과 저지대 비치를 위한 모래주머니 제작에 나섰다.

특히 불법광고물 판정으로 수거된 폐현수막을 이용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쓰레기 감소와 함께 자원 재활용 효과도 거뒀다.

희망일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동면의 깨끗한 거리



장흥군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모래주머니를 제작, 상습 침수지역에 비치했다. <장흥군 제공>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호 장동면장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가 기존 모래주머니보다 튼튼해 모두들 만족해 한다"며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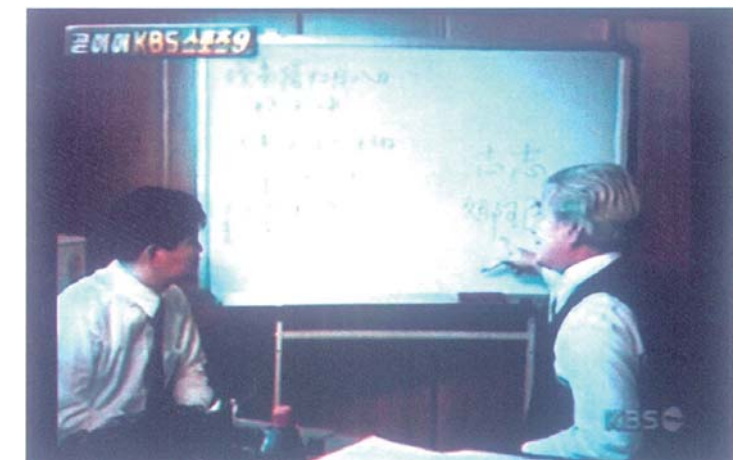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